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승님, 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

다급하거나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인(仁)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네.

2

그렇다면, 인이란 무엇입니까?

3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여 말과 행동이 예에 맞는 것[克己復禮]이라네.

4

- ① 선행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악한 본성을 교정해 나간다.
- ② 열반에 이르기 위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제거한다.
- ③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행동한다.
- ④ 신분이나 친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한다.
- ⑤ 인위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소박한 본성을 따른다.

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투자의 사회화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과의 협력을 모두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을: 생산 수단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노동이 다수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면, 이는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와 마침내 양립할 수 없게 된다. 이로써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

- ① 갑: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경기 불황을 극복해야 한다.
- ② 갑: 유효 수요의 과잉은 대량 실업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다.
- ③ 을: 자본주의의 모순은 모든 계급의 타협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④ 을: 계획 경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국가는 존속되어야 한다.
- ⑤ 갑과 을: 사유 재산제를 폐지해야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3. 동양 불교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일체가 공(空)하지 않다면 생멸도 없고 사성제도 없다. 조건에 따라 생기지 않는 고(苦)는 없다. 고 역시 무상(無常)하므로 고에 자성(自性)이 있다면 무상도 없다.

(나) 일체는 오직 식(識)일 뿐이다. 식에서 떠나지 않는 법은 부정되지 않기에 '오직'이라 한다. 일체가 극단을 떠날 때, 유식의 뜻이 성립되고 중도(中道)에 부합한다.

- ① (가): 모든 존재와 현상을 공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 ② (가): 경전의 가르침을 따르되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 ③ (나): 번뇌에 물든 식을 전환하여 맑은 지혜를 얻어야 한다.
- ④ (나): 유식은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 마음의 본체를 의미한다.
- ⑤ (가)와 (나): 중도의 진리를 통찰해야 열반에 이를 수 있다.

4.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갑: 우리는 본성에 복종해야 한다. 즉 필수적인 욕망과 해롭지 않은 자연적 욕망은 충족시키되, 해로운 욕망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을: 우리가 본성의 지배를 받는 우주의 일부임을 알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만족할 것이다. 전체에 이로운 것이 부분에 해로울 수 없다.

(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A

예

B

예

갑의 입장

C

예

을의 입장

아니요

<범례>

출발 조건

판단 내용

판단 방향

사상가의 입장

- ① A: 평온한 삶을 위해 신과 자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가?
- ② A: 쾌락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덕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 ③ B: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쾌락은 불필요한가?
- ④ B: 참된 행복을 위해 모든 자연적 욕망을 충족해야 하는가?
- ⑤ C: 외부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가?

5.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고, 병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철학에는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참되어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동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를 통해 철학의 제1원리를 발견하였다.

을: 철학의 다양한 학설과 그릇된 증명 방법 때문에 우상(偶像)이 생긴다. 참된 철학의 임무는 꿀벌이 꽃에서 얻은 재료를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하듯, 실험을 통해 얻은 재료를 지성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하는 것이다.

병: 철학이 입증 불가능한 사변(思辨)에 머물지 않으려면, 철학이 가설로서 제안하는 경험의 이론은 실제적인 경험의 변화를 통해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철학은 사회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

- ① 갑은 방법적 회의는 자명한 진리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우상을 타파하는 데 있다고 본다.
- ③ 병은 전통적인 학설의 가치는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④ 갑과 을은 개인의 감각적 경험을 지식의 유일한 원천으로 본다.
- ⑤ 을과 병은 지성적 탐구가 삶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다.

6.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선천은 물질 개혁이요, 후천은 인심 개혁이다. 도심(道心)이 쇠약하고 인심이 위태하여도 한울의 신령한 변화 중에 개혁의 운(運)이 회복되었으니, 우리 도의 덕을 세상에 펼침[布德天下]은 한울이 명하신 바이다.
 을: 외형의 낙원은 과학이 발달되는 것이요, 내면의 낙원은 도학이 발달되는 것이다. 이제 외형의 낙원은 되었으나 아직 내면의 낙원은 되지 않았다. 내외겸전(內外兼全)한 낙원을 만들기 위해 물질이 개혁되었으니 정신을 개혁하자.

- ① 갑: 만민은 한울을 모시고 있으므로 차별받아서 안 된다.
- ② 갑: 후천 개혁을 위해 성경신(誠敬信)의 가치를 멀리해야 한다.
- ③ 을: 진리를 구하는 수행은 일상생활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 ④ 을: 일원상(一圓相)을 표본으로 수행해야 해탈에 이를 수 있다.
- ⑤ 갑과 을: 민족의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지상 낙원을 실현해야 한다.

7.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결과가 명백하게 알려진 것이라면 그 결과의 고유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논증할 수 있다. 결과가 주어져 있다면 원인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명한 것이 아니지만 창조의 결과들을 통해 다섯 가지 방법으로 논증될 수 있다.

— < 보 기 > —
 ㄱ. 철학은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ㄴ. 신앙과 이성신으로부터 나왔으므로 조화될 수 있다.
 ㄷ. 신의 존재는 사물의 운동 원인을 고찰하여 증명될 수 있다.
 ㄹ. 사물과 공유하는 인간 본성은 인간이 추구하는 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신은 자기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자유롭게 존재한다. 또한 신은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이해한다.

— < 보 기 > —
 ㄱ. 신은 어떠한 원인도 없이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이다.
 ㄴ. 신은 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들의 내재적 원인이다.
 ㄷ. 정신은 물질과 달리 필연적 인과 질서를 벗어날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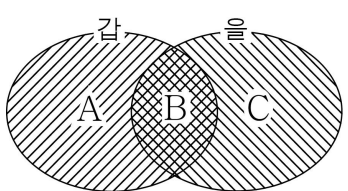
9.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자들에게

부처의 가르침은 지극히 넓고 결림이 없으므로 서로 다른 견해도 모두 부처의 뜻이라네. 백가(百家)의 학설이 옳지 않은 것이 없고 팔만(八萬)의 법문도 모두 이치에 들어맞는다네. 하지만 좁은 소견에 치우친 사람은 견해를 같이하는 이는 진리를 얻었다고 하고, 달리하는 이는 일탈했다고 하네. 마치 갈대 대롱으로 하늘을 보면서 그 대롱이 아니면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네. 그대들은 양극단을 멀리 떠나 평등하게 일미(一味)를 맛보며 세속을 초월한 경지에 이르기를 바라네.

- ① 염불 수행만으로는 부처의 땅[淨土]에 태어날 수 없다.
- ② 일심(一心)으로 바라보면 진여와 생멸은 조화될 수 없다.
- ③ 깨달음을 마음 밖에서 구해야 중생 구제를 실천할 수 있다.
- ④ 부처의 법을 얻으려면 유무(有無) 중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
- ⑤ 각 종파의 서로 다른 주장을 하나인 근원으로써 회통해야 한다.

10.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사람은 배우지 않고도 행할 수 있는 능력[良能]과 생각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능력[良知]이 있다. 부모를 친애함이 인(仁)이요, 어른을 공경함이 의(義)이니 이는 천하에 두루 통하는 것이다.</p> <p>을: 사람의 본성은 예의(禮義)를 알지 못하므로 성인(聖人)은 사려를 쌓고 작위를 익혀 예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그릇이 장인의 작위에서 생기는 것이지 사람의 본성에서 생기지 않는 것과 같다.</p>
(나)	 <p>— < 범례 > —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 < 보 기 > —
 ㄱ. A: 타고난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해야 한다.
 ㄴ. A: 통치자는 덕을 바탕으로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
 ㄷ. B: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ㄹ. C: 인의는 교육과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도달할 곳을 아는 것이 지(知)이고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치지(致知)이다. 알기만 하고 행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지 하나만 말해도 이미 행(行)이 내재되어 있다.
을: 도달할 곳을 알게 된 다음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치지이다. 지가 먼저 있기에 일의 요령을 알 수 있다. 지가 우선이고 행이 나중에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① 갑: 마음이 발하여 머무는 곳[事]에는 언제나 천리가 실현된다.
- ② 갑: 본성을 극진히 발휘함이 곧 이치를 궁구하는 것[窮理]이다.
- ③ 을: 양지의 발휘만으로는 모든 이치를 활연히 꿰뚫을 수 없다.
- ④ 을: 이치를 궁구하여 도리를 얻으려면 경(敬)을 유지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이론적 학습이 없어도 누구나 지니는 앎이 존재한다.

12.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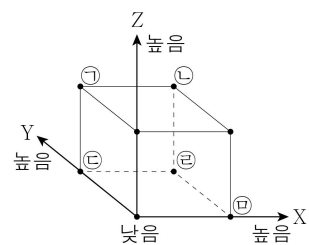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혼자 힘만으로 절망을 제거하려 한다면, 노력하는 그만큼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질 뿐이다. 단독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신이 신(神) 앞에 있는 것을 의식할 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보 기 >
ㄱ. 주관적 진리에서 벗어나야 신 앞에서 단독자로 설 수 있다.
ㄴ.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절망을 제거할 수 없다.
ㄷ. 실존적 선택 상황을 회피해야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ㄹ. 절망은 또 다른 실존의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자유는 비지배를 의미한다. 자의적 간섭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간섭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지배는 그러한 가능성만으로도 실현된다.
을: 자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영역이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축소될 때 나는 강제되거나 노예 상태에 처하게 된다.



- X: 불간섭의 영역과 자유의 영역이 비례함을 강조하는 정도
- Y: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서 강조하는 정도
- Z: 간섭받지 않더라도 지배당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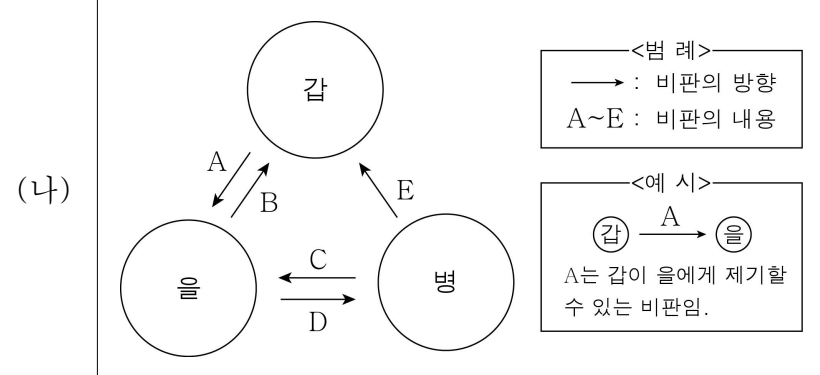
갑: 우리의 목표는 행위자 자신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최대 행복이다. 이는 사람들이 고귀한 성품을 함양할 때만 달성될 수 있다. 우리는 양과 질 두 측면에서 최대한 고통에서 벗어나 쾌락을 누려야 한다.
을: 사람의 성품에 대한 도덕적 구별은 그 성품이 사회의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어떤 성품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것은 사회의 이익에 대한 관심 때문이며, 이러한 관심은 공감을 통해 생겨난다.

< 보 기 >
ㄱ. 갑: 행복은 곧 쾌락이며,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ㄴ. 갑: 도덕적 의무 간 갈등은 공리의 원리로 해결될 수 있다.
ㄷ. 을: 선악의 구별은 이성애, 선행의 실천은 감정에 근거한다.
ㄹ. 갑과 을: 사회적 행복을 추구하는 의지는 그 자체로 선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의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성(性)의 유행(流行)이 곧 정(情)이다. 정에는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다. 이 둘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이기(理氣)의 분별이 있으니, 어찌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을: 성은 이와 기가 합한 것이다. 이와 기를 합하여 이름하면 기질지성뿐이다. 성이 하나인데 정에 이발(理發)과 기발(氣發)의 구분이 있다고 하면 어찌 성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병: 성은 천명(天命)에 근본을 두고 있다. 성이 하고자 하는 바를 어기고 성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천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천명지성은 선을 즐기고[嗜] 의를 좋아한다[好].



- ① A: 이가 아니면 발하게 할 까닭[所以]이 없음을 간과한다.
- ② B: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에 근본[本]한 것임을 간과한다.
- ③ C: 기질지성의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자주지권임을 간과한다.
- ④ D: 만물에게 부여된 본연지성은 모두 동일함을 간과한다.
- ⑤ E: 사단은 마음의 본체가 아니라 마음의 작용임을 간과한다.

16.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훌륭한 국가는 지혜롭고 용기 있으며 절제 있고 또한 정의롭다. 정의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자의 일에 충실하며 서로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서로 직업을 교환하려고 하거나 동일한 사람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한다면 이는 국가에 대한 최대의 해악이며 불의이다.

— < 보 기 > —

- ㄱ. 좋음 자체를 인식한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
 ㄴ. 지혜는 절제와 달리 모든 계층들에게 요구되는 덕이다.
 ㄷ. 사람들은 타고난 성향에 적합한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
 ㄹ. 정의로운 국가에서 수호자와 생산자는 재산을 공유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법령과 제도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덕에 어긋나는 것이다. 성인(聖人)이 천하를 다스릴 때는 자신을 바르게 한 후에 행동하였다. 마음을 담담한 곳에 노닐게[遊] 하고 기운을 고요한 곳에 모아 놓으며 만물의 자연스러움을 따르면 천하가 잘 다스려질 것이다.

— < 보 기 > —

- ㄱ. 무위의 다스림을 실현하려면 예의 규범을 세워야 한다.
 ㄴ. 도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ㄷ. 덕이 지극한 세상이 되려면 현명한 이를 숭상해야 한다.
 ㄹ.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관념을 잊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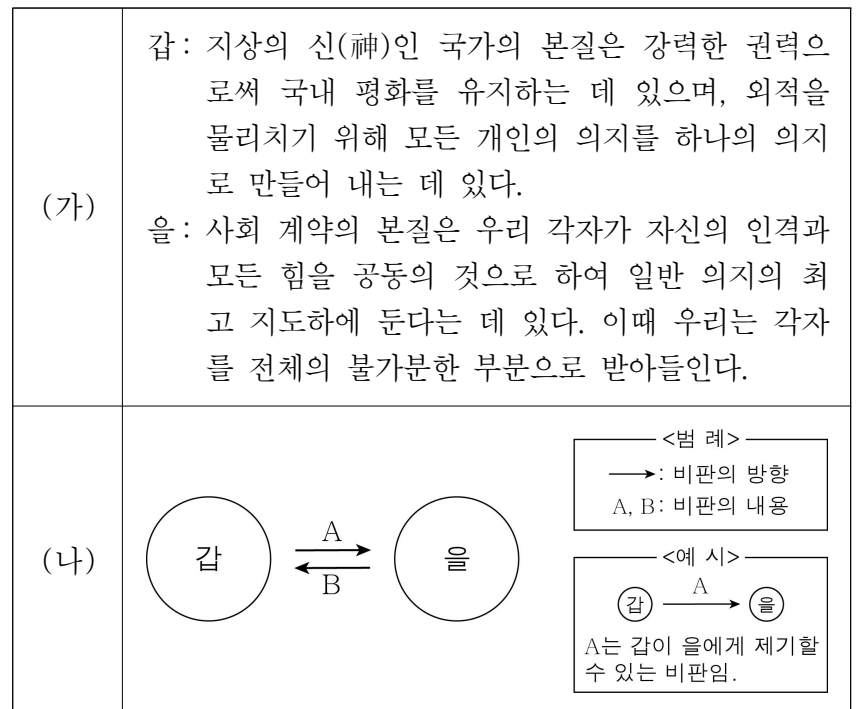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8.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존경의 대상은 오로지 법칙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 자체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서 부과하는 법칙뿐이다.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애(自己愛)를 고려하지 않고 복종한다. 이 법칙에 대한 존경은 비록 감정적이기는 하지만, 외부의 영향에 의해 받아들여진 감정이 아니라 이성 스스로가 일으킨 감정이다.

- ① 도덕은 사회적 선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② 도덕은 인간의 보편적 경향성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③ 인간의 준칙은 법칙이 될 수 없기에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④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존재는 법칙에 대한 존경을 지닌다.
 ⑤ 의무에서 비롯된 자기 행복의 추구는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자연 상태는 불의가 자행되는 전쟁 상태임을 간과한다.
 ② A: 국가의 성립으로 개인의 이기심이 소멸하게 됨을 간과한다.
 ③ B: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이성에서 지배됨을 간과한다.
 ④ B: 국가는 개인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된 것임을 간과한다.
 ⑤ B: 주권은 사회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 있음을 간과한다.

20.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구도 나쁜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것을 행하는 것은 모두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안다면, 그러한 앎이 지시하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



갑

자제력 없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에 이끌려 그 행위를 합니다. 자제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 이성 따라 그 욕구를 억제합니다.



을

- ① 갑: 지혜를 갖추지 않은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② 갑: 용기에 대해 보편적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을: 절제를 갖춘 사람은 실천적 지혜를 지닌 사람이다.
 ④ 을: 최고의 행복은 품성적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⑤ 갑과 을: 이성을 발휘하지 않아도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